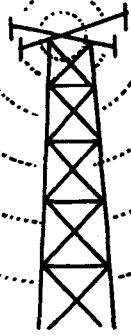


1월의 안테나



盧永翰

(대한양계협회 편집국장)

79년에 바란다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속도가 급증이라는 말로는 실감이 나지않아 폭발적인 증가라는 말을 사용하기에 합당한 78년이었습니다. 물론 닭고기 및 계란의 수요도 크게 증가하였으나 특히 수입 쇠고기의 경우는 폭발적인 증가라는 말로도 표현이 부족한 한해이었습니다.

수요의 증가에 따라 양계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기업화, 집단화 됨에 따라 우리가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더욱 뚜렷이 노출된 1년이라고도 하겠습니다.

78년에도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였으나 해결치 못하고 새해에는 꼭 해결 하여야 될 우리 양계업계의 문제점들을 생각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1. 종 계

종계문제는 직접 부화업계의 시장 점유율과 연결되어 업계 판도를 결정하는 열

쇠가 되므로 73년도 농수산부의 종계수입 금지 조치 이후, 업계의 최대 관심사이었습니다.

종계문제로 업계의 의견이 갈라지고 종계문제로 서로 반복하는 일이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양계업계의 모든 문제는 종계 문제로 해결되어야 되는 인상을 줄 정도로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였습니다.

부로이러 C.C가격이 국제가격에 비하여 너무 비싸다든가, 또는 품질이 떨어진다는 그런 문제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겠지만, 이에 앞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종계문제를 다루는 행정부나 업계 지도적 위치에 있는 분들의 종계 문제를 다루는 자세가 올바러야 하겠습니다.

어떤 선입관이나 편견을 가졌다면 이야말로 우리나라 양계 백년 대계를 위하여 이보다 더 큰 불행은 없을 것입니다.

양계산업은 이제 생산조절만 하면 잘되는 산업으로 생각한다든가 또는 미리 과잉생산이 무서워 오늘날과 같이 1억불이



상의 고기를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시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닭고기 소비 시장마저 다른 육류에 잠식당하는 것등은 올바른 현실을 보지 못하는데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와 같이 고도로 발전된 산업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옛날 농가부업 양계시절의 향수에 젖어있는 것도 양계산업발전을 지연시키는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양계산업은 아무나 하면 되는 산업이기 보다는, 한사람의 잘하려는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여야 할 시기가 바로 79년 지금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이제는 규제억제 감독조치보다는 시장기능을 통한 자유로운 품질경쟁만이 업계가 발전하고, 타 경쟁 산업에 싸워서 이기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나치게 상부상조만을 강조하다 보면 업계를 정체시켜 발전을 가로 막고 안일과 타성에 흐르기 쉽습니다.

종계문제도 새해에는 시장기능을 통한 선의의 경쟁으로 불량추 생산의 소지를 없애고 양계산물 생산비를 줄이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하여야 하겠습니다.

불량추 생산을 막기위한 법이 생긴이후 부터 불량추 근절보다는 불량추 자체가 문제가 된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불량추 생산을 막는 법률보다는 불량추를 생산할 수 없도록 하는 정책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2. 사 료

사료문제에 대하여는 본지 78년 10월호에 특집으로 다루었으며 이때 지적되었던 모든 문제가 관계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되어 새해에는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고 양측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현재와 같이 배합 사료공장의 가동율이 145%에까지 달한다는 것은, 바꿔 말해서 배합사료에 거의 모든 축산이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서 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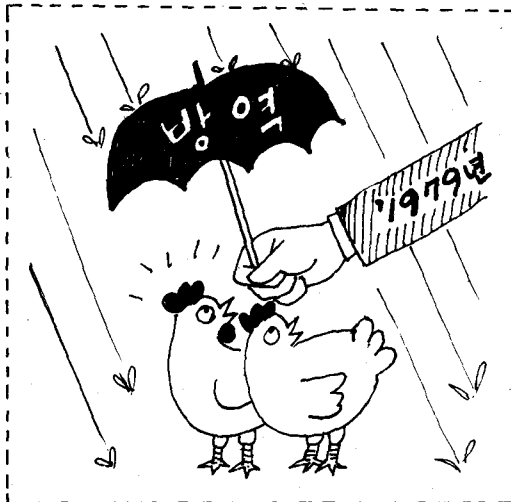
사료 생산량이 한계에 달한 것은 다른 모든 축산기반이 조성되어 있어도 사료없이 축산물 증산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축산물의 수입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지 않을 까 우려됩니다.

배합사료의 증산이 곧 축산물의 증산이며 배합사료의 품질개선과 가격조절은 축산물 생산비 절감과 가장 큰 관계가 있으므로 사료정책이 곧 축산정책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새해에는 축산물 생산비를 더욱 절감할 수 있는 사료가 생산되어야 하겠습니다.

3. 가축위생

가축위생 문제는 이번 호에 특집으로 다루었으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하고 다만 이번 세계가금학회에 참가했던 양계 시찰단이 귀국 후 이구동성으로 미국의 양계인은 질병에 대하여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 점과 오히려 질병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하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이 부럽고, 새해에는 우리도 질병으로 인한 손실이 훨씬 적어지도록 이번 특집에서 문제된 것이다 해결되도록 노력해야 되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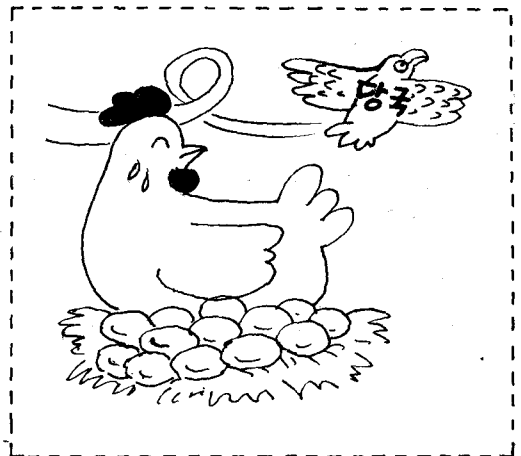


다는 것입니다. 양계의 집단화 기업화에 따라 필연적으로 문제되는 방역에 대한 제도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축산진흥회에도 주의분야가 없음은 질병으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큰지를, 축산 진흥을 위해 방역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많은 사람에게 정확히 인식되지 않고 있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새해에는 방역에 대한 인식부터 바뀌어 지는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4. 축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 연장

축산업에 대한 면세기간 연장에 대하여는 본지 8월호(31page)와 12월호(36page)에 이미 소개한 바와 같이 장덕진 농수산



부 장관이 국회에서 축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 연장 및 상손세, 감면에 대한 관련 법률을 79년 정기 국회에서 개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소득세 감면은 축산업계의 숙원으로, 농수산부에서 주관하겠지만 축산관계 모든 업계가 새해 초부터 이에 대한 자료 준비와 충분한 연구로 업계가 단합하여 79년에는 꼭 관련 법률이 개정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5. 양계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새해에는 2월 1일부터 서울 지역에서 닭고기의 유통이 생계에서 도계 유통으로 바뀌며, 서울 경기지역 양계협동 조합이 탄생되므로서 제란의 유통에도 혁명이 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물론 유통구조 개선을 반대하는것은 아니지만 76년도와 같이 소의 뿔을 고치려다 소를 잡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X X X

새해에는 서울지역에서 도계로 유통이 되므로 닭고기도 가격안정대를 설정하여 안심하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닭고기의 소비시장은 아직도 개발할 여지가 많으며 특히 새해부터 시행되는 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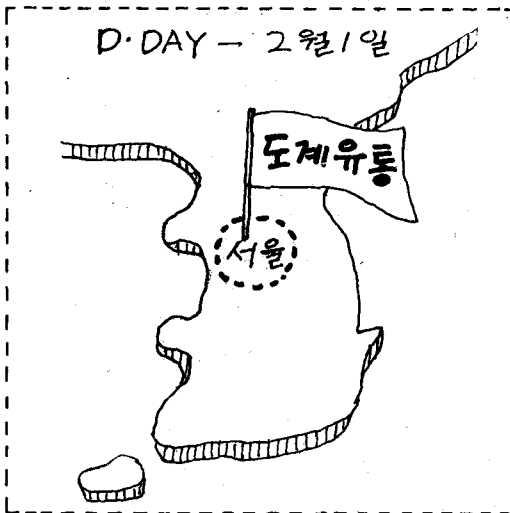
진 외국과의 닭고기 가공에 대한 기술 제휴나 합작회사도 새해에는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6. 양계산업의 기계화

양계산업이 기업화되고 인력이 부족하며, 질병으로 인한 손실과 사육환경 불량으로 닭의 생산성이 저하되므로서 양계산업의 기계화 필요성은 78년에 충분히 인식되었습니다.

제16회 세계가금학회 참석팀중에는 그곳에서 전시되었던 몇가지 급수 급이기견본을 가져와 국산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설비가 국산화 되기에는 아직도 국내 시장 여건 등이 어려움으로 어차피 도입에 당분간 의존하는 길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78년 정기국회에서 낙농기구등 일부는 관세율이 조정되었으나 가금사육용 기계기구 및 부화기 등도 79년에는 무세 내지는 현행 관세율을 대폭 인하하여 양계산물의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게 하여야 되겠습니다.



교급식에 제란 닭고기를 자라는 제2세국민에게 급식하여 그들이 건강하게 자랄수 있게 하여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한 값싸고 영양가 높은 닭고기의 다른 유통대체를 위하여는 현재 보건 사회부에서 유아식 외에는 허가하고 있지 않은 선

7. 양계산업을 수출산업으로

본지 12월호(201페이지)를 보면 태국의 부로이러 산업 현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태국의 도계시설 확장기사는 미사료곡물협회의 뉴스레타를 비롯하여 각종신 경제신문 축산관계 잡지에 모두 게재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르겠으나 기업주의 마음가짐과 정책의 방향이 한 산업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점입니다.



덴마크의 구룬드비허 목사의 마음 가짐이 덴마크를 풍요의 옥토로 만든 것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태국의 양계지도자들은 태국의 양계 산업을 수출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태국은 년 15~20%의 부로이러 산업의 신장율을 보였고 전체생산량의 30%를 수출한바 있고 이번 8만수 처리 규모의 도계장 시설도 여기에서 생산되는 부로이러의 50%를 수출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양계관계 잡지 기자들이 최근태국을 방문하고 1면 톱으로 태국의 도계장 시설이 일본시장을 겨냥하고 있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양계산업은 곧 과잉생산이며 생산 조절만이 양계산업이 살아남는다는 사고 방식과 양계산업도 수출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방식 사이에는 아려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태국의 양계지도자들의 적극적 이고도 긍정적인 사고는 위생적인 도계시설과 닭의 질병예방 등 관련산업의 발전도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양계산업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으며 이제는 생산조절 밖에는 없다고 우리가 낮잠 잘 동안 우리는 가장 비싸게 닭고기를 생산하는 나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양계인 모두가 긍정적이며 능동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땅만 바라보고 가는 양계업에서 앞길이 탄탄대로인지? 아니면 우리가 가는 앞길에 건널 수 없는 낭떨어지가 있어 그곳까지 간후에 발길을 되돌려야 하는 것인지, 새해에는 고개를 들고 먼 앞길을 한번 바라본후 걸어가는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